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별책부록

2024 경제 및 경영 환경 전망

IBK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tro 세계 경제의 3대 패러다임 전환

1. 뉴 애플	05
2. 경제 분절화	06
3. 고비용 고착화	07

1

세계 경제

총론	같은 위기, 다른 결과	09
미국	소비 증가세 둔화와 투자 회복세 예상	10
중국	소비·투자 중심의 점진적 회복 기대	11
일본	제한적인 소비 회복과 낮은 수출 증가세 전망	12
유로존	통화 긴축 장기화로 회복은 제한적	13
IBK 진출 신흥국	양호한 성장 지속	13

2

국내 경제

총론	투자·수출 부진이 완화되며 점진적 경기 개선	15
소비	회복세 둔화	16
투자	설비투자는 개선되나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	17
수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18
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지속	19
금리	인하 압력 확대	20
환율	다소 하락 안정되나, 높은 수준의 환율 지속	21



산업 환경

총론
반도체
자동차

수출 주력 업종 중심으로 생산 활동 개선
23
완만한 업황 개선
24
수요 감소로 생산 증가세 둔화
25



중소기업 경기 전망

생산
설비투자
자금사정
소상공인

제조업 정체, 서비스업 감소하며 부진 지속 전망
27
설비투자 위축 완화, 회복 속도는 제한적
28
우량·취약기업 간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
29
매출 부진 및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30
2024년 중소기업 정책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31

Intro



세계 경제의 3대 패러다임 전환

1. 뉴 애플노멀
2. 경제분절화
3. 고비용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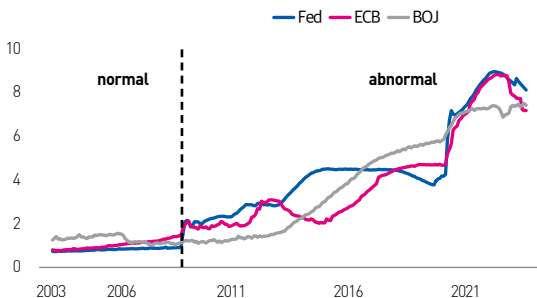
패러다임의 전환 ① 뉴 애플노멀

상식을 벗어난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혼돈의 시대 도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저물가’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정립이 뉴노멀(New Normal) 시대였다면, 뉴 애플노멀(New Abnormal) 시대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빈번히 발생해 무엇이 정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의미한다. 일례로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극약처방으로 양적완화^{QE},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곡선 역제정^{Yield Curve Control-YCC}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의 괴리, 테이퍼 텐트럼^{Taper Tantrum} 등 과거에 경험한 적 없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기존의 안전자산 범위가 모호해지며 금융 시장에서는 통상 반비례 관계를 보이던 유가와 달러 가치, 채권과 주식 가격 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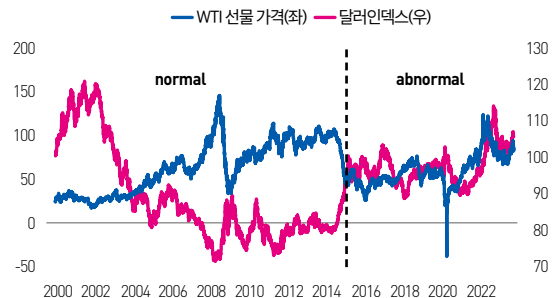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Brexit}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합리적 결정이나, 가상화폐 투기 열풍 같은 비이성적 투자 붐이 이는 아노말리 현상^{Anomaly Phenomenon}도 빈번해지면서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더 불어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해 점차 인간과 흡사해지면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불리던 창작이나 연구와 같은 분야까지 AI가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용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즉, 뉴 애플노멀 시대가 낳은 불확실성이 정부와 기업 나아가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혼돈의 시대, 세계 경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중앙은행 자산



단위 조 달러 조 유로 백조 엔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달러와 유가 관계



단위 % (좌)·1973.3=100 (우) 자료 블룸버그^{Bloomberg}

패러다임의 전환② 경제 분절화 Frag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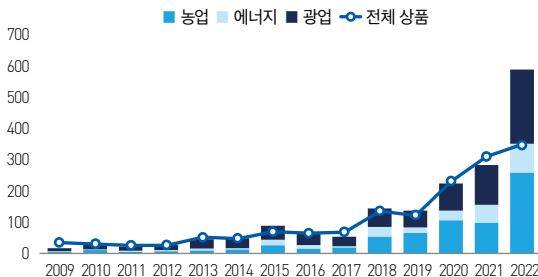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양대 블록 형성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발전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공생관계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에 이어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뚜렷히 보이며, 2022년 이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등 다수의 협의체를 빠르게 결성해 가고 있다. 이에 2023년 9월 WTO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두 블록 간 교역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블록 내 교역보다 4~6% 느리게 증가하고 있어 양대 블록 간 교역이 분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공생이 아닌 분절을 선택한 대가는 당연 뒤따라기 마련이다. 두 블록의 교역 분절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양극화 심화로 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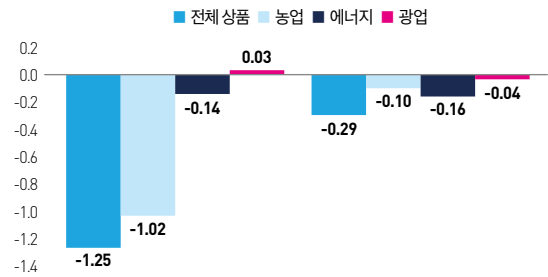
득 국가는 더욱 값비싼 비용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식량안보지수 결과를 보면 북미, 유럽 등 고소득 국가의 식량 자급률은 높은 반면, 남미,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역 분절로 저소득 국가는 식량 안보에 위협을 받으며 주변국보다 성장에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교역 제한 개입 횟수로 바라본 교역 분절의 징후



주: 섹터별 교역 개입(Trade Interventions) 횟수를 지수화 단위 2016~2019=100
 자료: 글로벌 트레이드 얼र्ट(Global Trade Alert)의 데이터베이스, IMF 계산

분절화로 인한 GDP 손실



단위: %p 자료: 영국 지질조사국(British Geological Survey), IMF 계산

패러다임의 전환③ 고비용 고착화

공급망 재편·자원 무기화·환경 규제 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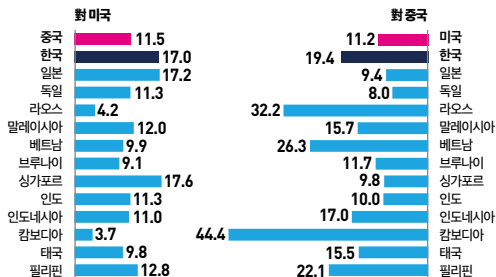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은 주요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공급망이며, 양국 간 상호 의존도 역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대 블록 간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 각국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우호국가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공급망이 미국, 중국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만큼 공급망 분리 및 재편에는 높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생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세계 분절화 영향으로 자원의 무기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의 원자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인도는 전기자동차의 원자재인 리튬·베릴륨 등과 설탕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핵심 자원 보유국은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이에 수입국들은 원자재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친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부담 증가도 고비용을 고착화

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탈탄소에 따른 비용 부담의 증가가 현실화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친환경 기조에 반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후화된 설비와 화석연료 공급 축소 등으로 화석연료의 공급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원자재 및 식료품 공급의 차질 역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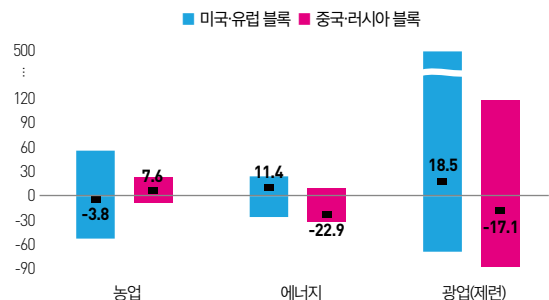
이처럼 비용 상승이 장기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까지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4년에도 5%대 기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미·중 공급망 의존도



주 국가별 자국 내 생산을 위한 해외 투입 중 미·중 투입 비중(2020년 기준), 주요국은 제조 강국과 신흥국 국가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분절에 따른 상품 가격 변화



주: 바 그래프는 가격 변화 범위, 점은 중간값 단위 % 자료 IMF 계산

1

CHAPTER

세계 경제



미국 소비 증가세 둔화와 투자 회복세 예상

중국 소비·투자 중심의 점진적 회복 기대

일본 제한적인 소비 회복과 낮은 수출 증가세 전망

유로존 통화 긴축 장기화로 회복은 제한적

IBK 진출 신흥국 양호한 성장 지속

세계 경제

같은 위기, 다른 결과

2023년 세계 경제는 긴축 장기화 및 금융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견조한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2024년은 고비용·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간 상이한 펀더멘털이 성장률 차이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중동 분쟁이 확산되거나 기후변화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소비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런 불확실한 경제 환경은 안전자산 선호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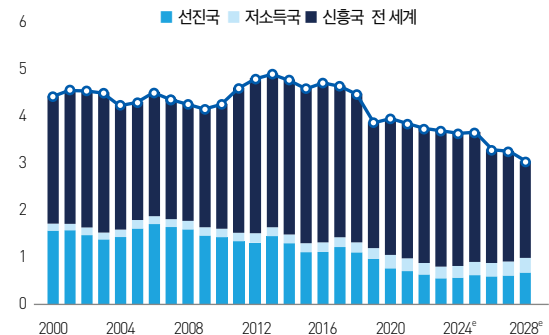
미국을 제외한 원유 및 원자재 수입국은 상품 가격 상승에 달러 강세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패권경쟁 및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식량·자원·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저소득 국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률

	2022	2023 ^e	2024 ^e
세계	3.5	3.0	2.9
선진국	2.6	1.5	1.4
미국	2.1	2.1	1.5
유로존	3.3	0.7	1.2
일본	1.0	2.0	1.0
신흥국	4.1	4.0	4.0
중국	3.0	5.0	4.2
인도	7.2	6.3	6.3
베트남	8.0	4.7	5.8
인도네시아	5.3	5.0	5.0
폴란드	5.1	0.6	2.3

주 e는 전망치 단위 % 자료 IMF,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23.10월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성장 기여도



주 e는 전망치 단위 %-%p 자료 블룸버그

미국

소비 증가세 둔화와 투자 회복세 예상

현황

소비가 주도한 예상 외의 성장

2023년 미국은 견조한 고용 시장과 초과 저축을 바탕으로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선 고용 시장은 1969년 이후로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만큼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축적된 초과 저축 또한 소비 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필수재뿐 아니라 여가, 레저, 오락과 같은 비필수재 부문의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 증가세도 가팔라 미국의 뜨거운 소비 분위기를 재확인할 수 있다. 투자 부문은 그동안 부진했던 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 투자가 10개 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고, 비주택 부문의 설비투자는 아직은 다소 주춤하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 부문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었다.

※ 가계소비(전기비연율, %) 3.8(2023.Q1) → 0.8(Q2) → 4.0(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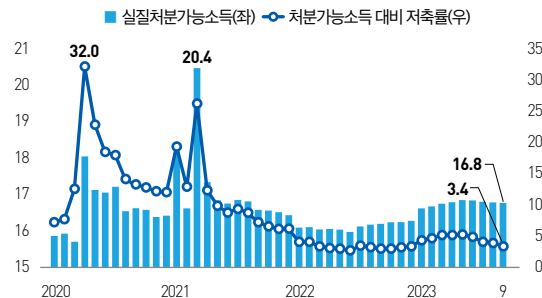
전망

소비 둔화로 경기 성장세 약화

지난해 통화 긴축에도 고용 시장은 뜨거웠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24년 미국 노동 시장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주거 비용 및 금융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처분가능소득의 감소로 인해 2024년 미국은 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택 부문은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확대되는 동시에 지적재산 부문이 주도하는 투자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 부문은 건축 허가 후 미착공 건수가 여전히 높아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까지 주택 투자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비주택 부문의 투자 확대가 주택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며 전체 투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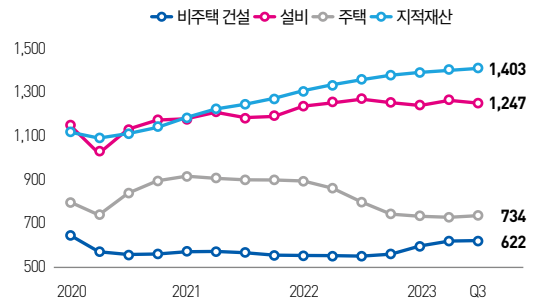
※ 구인자수(천명) 10,961(2022.6) → 11,234(12) → 9,553(2023.9)

처분가능소득 및 대비 저축률



단위 조 달러(좌):%(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투자 부문별 변동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EA

중국

소비·투자 중심의 점진적 회복 기대

현황

수출·투자 중심으로 경기 회복 부진

2023년 중국은 대외 수요의 위축과 세계 경제 분절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교역 분절화의 증거는 지역별 수출 실적 차이로 역력히 드러난다.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교역 규모가 큰 미국과 유럽 등으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투자 부문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도로, 철도 등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민간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2023년 10월 비구이위안이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주택 수요 부진과 기업 부채 리스크로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 수출(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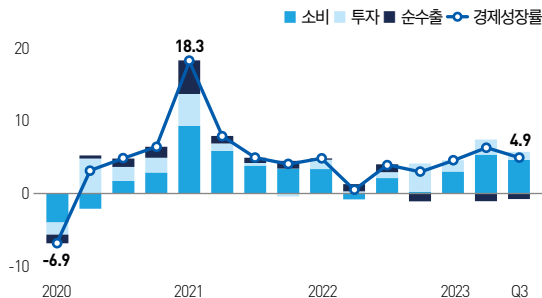
-7.5(2023.5) → -12.4(6) → -14.5(7) → -8.8(8) → -6.2(9)

전망

내수 진작 효과로 경기 부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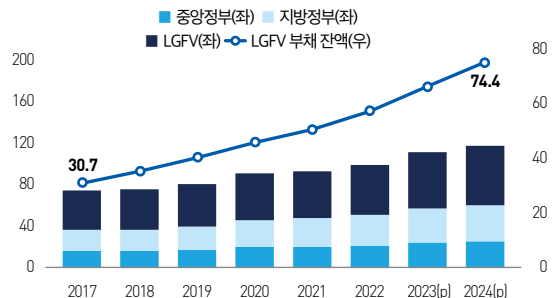
2024년 중국은 정부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보이며 소비와 투자 중심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된다. 과거 소비 진작에 집중되었던 부양책이 주택 매각 소득세 일부 환급, 모기지 금리 인하 등 부동산 및 금융 규제 완화로 확대되며 내수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 부양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중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은 높은 부채 수준 때문에 재정 지출이나 설비투자 여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로 정보기술^{IT} 등 인력은 필요하나, 충분한 인력이 없고 기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드는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라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5%를 초과하던 이전 수준의 고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정부 부채 규모



주 2023년 이후, 지방정부의 부동산투자기^{LGFV}는 IMF 추정치 단위 GDP 대비 (%)·조 위안(우) 자료 중국 재무부·IMF

일본

제한적인 소비 회복과 낮은 수출 증가세 전망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며 경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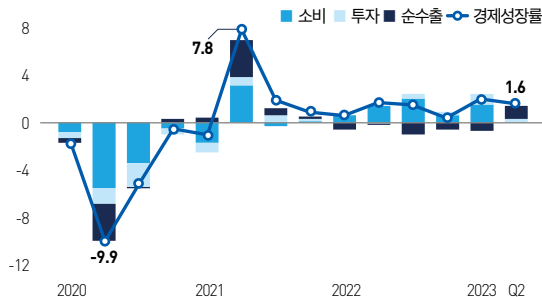
2023년 일본은 높은 물가 수준과 실질임금의 하락 영향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3년 노사 임금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높은 식품 가격 등의 영향 등으로 3%대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실질임금은 17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엔화 약세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판매 호조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엔화 약세 지속과 항공사 증편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투자 증가에도 수출 둔화로 회복세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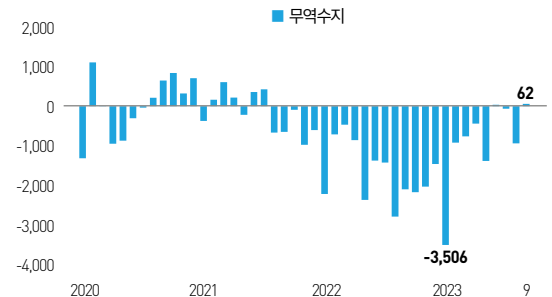
2024년 일본은 설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소비 부진이 지속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탈탄소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등 정부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대만 TSMC와 미쓰비시화학의 공장 신설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은 엔화 약세 효과가 약화되며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고물가 대책, 지속적인 임금 인상, 지방 성장 전략 등이 정부 정책 효과로 소폭 개선되었지만, 오랜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일본은 물가 상승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해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미 Fed의 통화정책이 완화로 전환되고 일본은행 통화정책이 긴축 행보를 보여 엔화 약세가 완화된다면 물가가 안정되며 내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p 자료 일본 내각부

무역수지 추이



주 통관 금액 기준 단위 십억 엔 자료 일본 재무성

유로존

통화 긴축 장기화로 회복은 제한적

소비는 회복되나, 투자둔화로 경기 회복은 제한적

2023년 유로존은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소비와 투자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로존 국민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국가인데, 코로나19로 숙련 인력이 이탈하고,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뒤처지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유로존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4년은 고용 호조로 임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으로 실질소득까지 증가하며 가계 구매력이 커지면서 민간소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대비 에너지 보조금을 약 75%로 대폭 줄이는 등 정부 지원이 축소되어 투자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전년 동기 대비, %) 4.1(2021) → 3.4(2022) → 0.2(2023.Q2)
투자(전년 동기 대비, %) 3.1(2021) → 2.9(2022) → 1.3(2023.Q2)

IBK 진출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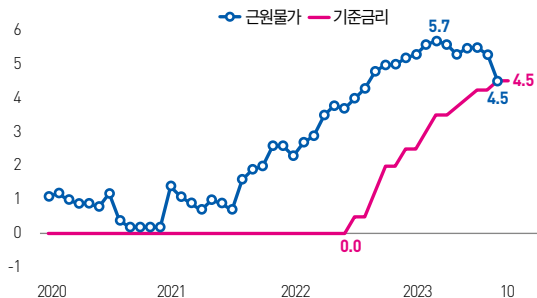
양호한 성장 지속

소비 개선, 투자 확대로 성장세 지속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IBK 진출국은 2차전지 공장 신설 등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투자 확대, 정부 지출 및 수출 증가 등으로 대체로 양호한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다만, 긴축으로 인한 차입 비용 증가, 소득 증가세 약화 등이 민간소비 개선을 제약하면서 성장 폭은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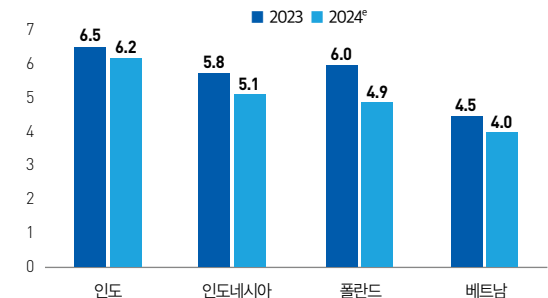
2024년에는 물가가 안정되고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2023년보다는 소비 개선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베트남이 미국의 핵심 공급 기지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확대도 성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 상승률 및 기준금리



주: 전년 동기 대비, 근원물가는 식품과 에너지 제외 단위 % 자료 유로스타트^{Eurostat}, ECB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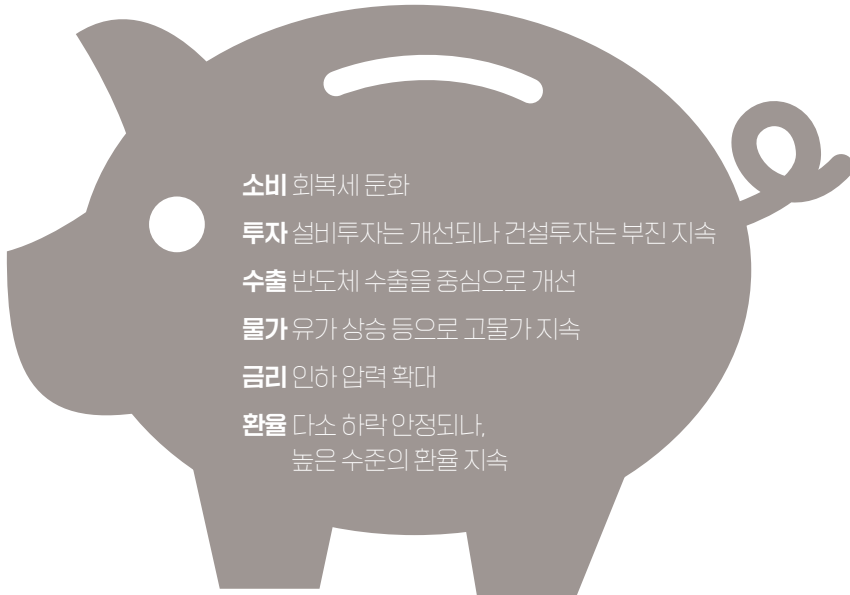


주: 2023은 10월 기준, 2024년은 전망치 단위 % 자료 블룸버그

2

CHAPTER

국내 경제



소비 회복세 둔화

투자 설비투자는 개선되나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

수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지속

금리 인하 압력 확대

환율 다소 하락 안정되나,
높은 수준의 환율 지속

국내 경제

투자·수출 부진이 완화되며 점진적 경기 개선

2023년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보복소비의 약화로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며 민간소비 회복세는 둔화했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의 확대로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며,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건설 투자도 부진을 겪었다. 또한 IT 산업 업황의 악화가 지속되고,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수출 부진 역시 지속되었다.

2024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IT 산업 업황이 회복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반도체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등 IT 경기 반등에 따른 투자 및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

이낸싱^{PF} 부실 등 국내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리스크 역시 잠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항목	2022	2023			2024 ^e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6	0.9	1.8	1.4	2.3	2.2	2.2
민간소비	4.1	3.0	1.0	2.0	1.8	2.5	2.2
설비투자	-0.9	4.9	-10.3	-3.0	-1.3	9.7	4.0
건설투자	-2.8	2.1	-0.5	0.7	-2.5	2.0	-0.1
상품수출	3.6	-1.1	2.6	0.7	2.4	3.8	3.1
상품수입	4.3	1.8	-3.4	-0.8	0.4	5.4	2.9
소비자물가	5.1	4.0	3.0	3.5	2.5	2.3	2.4

주 e는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2023.8월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2023 ^e	2024 ^e	전망 시점
IMF	1.4	2.2	2023.10
OECD	1.5	2.1	2023.6
KDI	1.5	2.3	2023.8
정부	1.4	2.4	2023.7
IB 평균	1.2	2.2	2023.9

주 e는 전망치 단위 % 자료 각 발표기관

소비

회복세 둔화

2023년 소비는 실질 구매력 약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었고, 주택 가격 등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공포로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나타나며 소비심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

2024년 역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등 소비 증가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축적된 우리나라 가계의 초과 저축 규모가 101조~129조 원에 달하고, 고용 상황도 양호해 소비 여력이 있고, 중국의 유커 규제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소비가 회복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매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3년은 고물가의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었다. 2024년 역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 증가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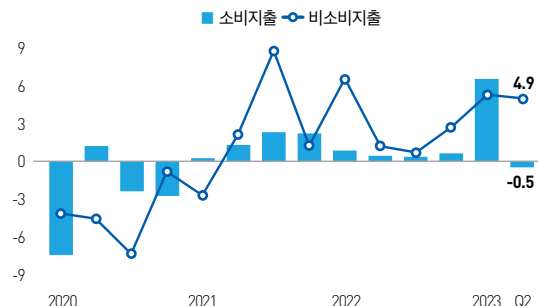
※ 가계 실질 처분가능소득(전년 동기 대비, %)

3.2(2021.Q4) → -1.9(2022.Q4) → -1.3(2023.Q1) → -5.9(Q2)

※ 관광 목적 입국자 수(전년 동기 대비 증감,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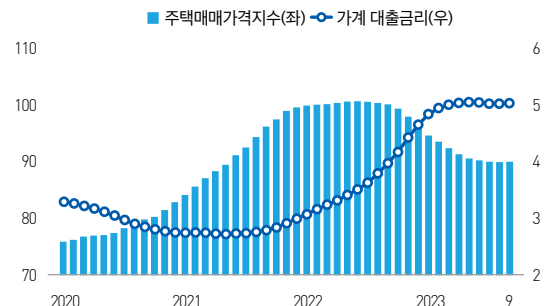
296(2023.1) → 303(2) → 605(3) → 679(4) → 603(5) → 655(6) → 700(7) → 680(8)

가계 지출



주 전년 동기 대비, 실질금액 기준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가계 대출금리 및 주택가격지수



주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파트 기준, 대출금리는 전액 기준 단위 2012.1=100(좌)·%(우) 자료 KB-한국은행

투자

설비투자는 개선되나 건설투자는 부진 지속

2023년은 대내외 경기 부진과 높은 조달비용의 영향으로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 부문에서 모두 부진을 겪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재고 증가와 높은 금리 수준 지속에 의한 금융 비용 부담 등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었으며, 높은 원자재 가격과 고 금리,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 회사의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이어지며 신규 착공 감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부진을 겪은 것이다.

2024년에는 IT 업황 회복 등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친환경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로 플랜트 등 토목 부문은 개선이 기대되지만, 부동산 PF 수익성 저하로 부실 우려가 여전히 높아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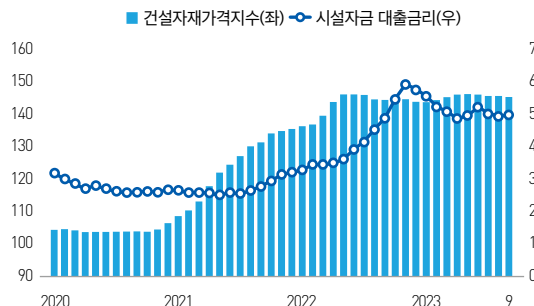
※ 정부 SOC지출예산(조 원)

25.0(2023년 본예산) → 26.1(2024년 예산안),
2024년 SOC 예산 전년 대비 4.6% 증가

※ 금융권 PF 연체율(기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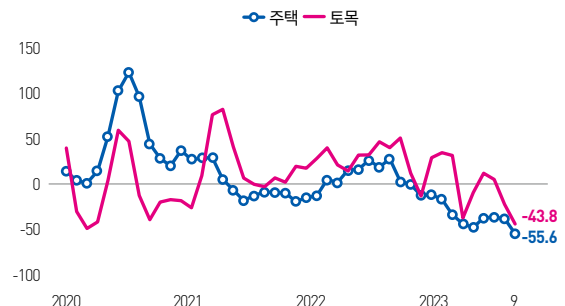
0.55(2020) → 0.37(2021) → 1.19(2022) → 2.01(2023.3) → 2.17(6)

건설자재 가격 및 시설자금 대출금리



주 중간재 건설용 기준,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단위 2015=100(좌)·%(우) 자료 한국은행

공종별 건설수주액



주 3개월 이동평균, 전년 동기 대비, 경상금액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수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2023년 수출은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과 IT 수요의 감소, 반도체·철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출 감소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북미, 유럽 중심으로 전기차 등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반도체 감산 조치 이후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며 2023년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반도체 감산 효과로 가격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AI 수요도 확대되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관광업이 개선되며 서비스 수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급 차질에 따른 이연수요 효과가 종료되고,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되는 양상이어서 수출이 둔화되며 재화 수출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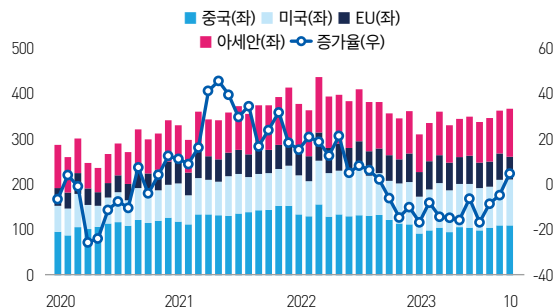


2024년에는 반도체 가격 반등 및 석유 관련 주력 품목의 수출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 등 수출 회복세가 기대된다.

※ 자동차 수출(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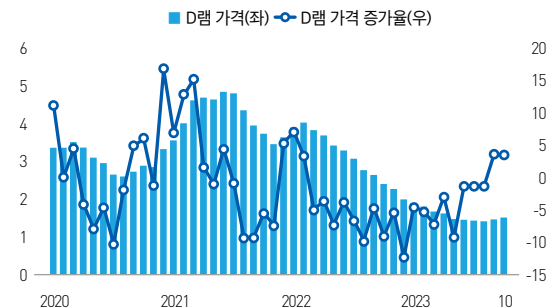
21.8(2023.1) → 63.6(3) → 58.3(6) → 9.5(9)

주요국 수출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억 달러(좌)·%(우) 자료 한국무역협회

D램 가격



주 DDR4 8기가바이트^{GB} 1G×8 3,200메가헤르츠^{MHz} 기준, 전월 대비 단위 달러(좌)·%(우) 자료 블룸버그

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고물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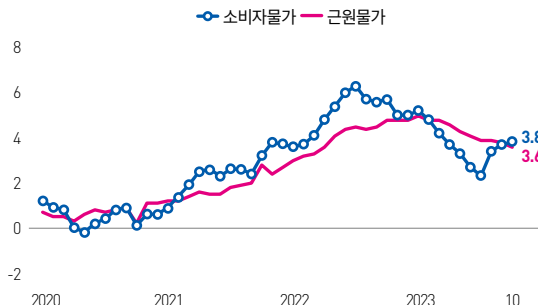
2023년 국내 물가는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며 상반기까지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OPEC+ 회원국의 원유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반등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폭은 다시 확대되었다.

2024년은 소비 둔화가 물가 상승을 제약하겠지만, 중동 분쟁 등의 영향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비중이 2023년 기준 70.2%로 중동 분쟁 확산은 원유 수급 불안과 국내 물가 상승 문제로 직결될 여지가 높다. 또한 누적된 원가 상승을 반영한 공공요금 인상과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 등이 맞물려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2024년에도 고물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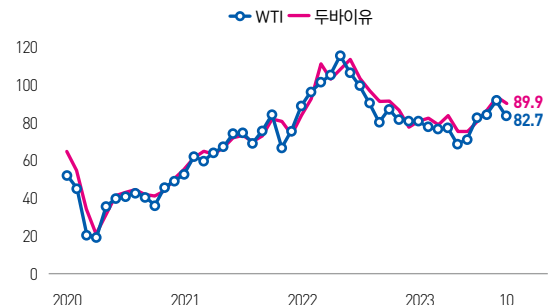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보이는 듯했으나, OPEC+ 회원국의 원유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반등과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폭은 다시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주: 근원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제외,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원유 가격



주: 선물 가격 기준 단위 달러/배럴 자료 인베스팅닷컴 Investing.com

금리

인하 압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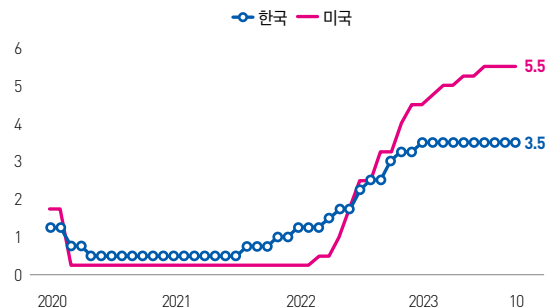
고물가, 원화 약세,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 우려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금리의 경우, 미 Fed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우리 국고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다가, 최근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다시 커지며 하락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고금리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시기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지속세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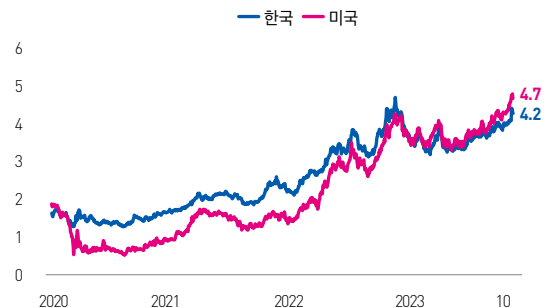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로 동결되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기준금리



주 미국은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 상단 기준 단위 % 자료 Fed-한국은행

한미 시장금리



주 미국채-국고채 10년물 기준 단위 % 자료 Fed-한국은행

환율

다소 하락 안정되나, 높은 수준의 환율 지속

2023년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역전과 글로벌 달러 수요 확대로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미국 통화긴축 종료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원화 가치는 다소 상승하겠으나, 중동 분쟁 확산과 경제 분절화로 예상하지 못한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할 리스크도 여전히 높아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다소 하락 안정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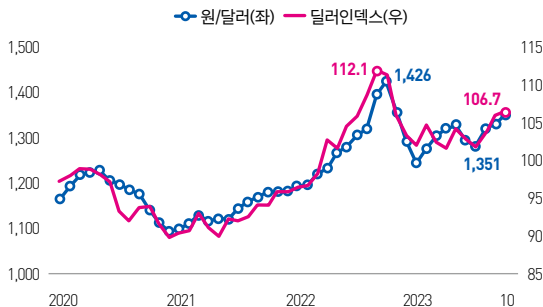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p)

1.00(2022.1) → 0.00(6) → -1.00(2023.1) → -2.00(9)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가 안전자산인 달러의 선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당분간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과 달러인덱스^{DXY}



주 달러인덱스는 1973.3=100, 환율은 종가 기준 단위 원(좌)·pt(우) 자료 미 뉴욕거래소^{NYSE}·한국은행

달러인덱스 전망

	2023년 ^a	2024년 ^a	
		6월	12월
유니크레디트	103.8	100.3	98.2
BNP파리바	104.7	100.9	98.2
캐피털이코노믹스	105.7	103.3	101.0
라보뱅크	107.9	107.0	93.9
커먼웰스뱅크	103.8	98.9	95.6
평균	105.4	102.0	98.7

주 달러인덱스는 1973.3=100, 2023.10월 전망 기준 단위 원/달러 자료 블룸버그



C H A P T E R

산업환경



산업 환경

수출 주력 업종 중심으로 생산 활동 개선

2023년은 고물가·고금리, 경제 분절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산업 전반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제조업 부문에서 IT 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했고, 주요 전방산업의 생산 증가에도 석유화학 및 철강 생산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기저효과와 실질가치분소득의 감소로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등의 생산 증가율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내수 회복 속도의 둔화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조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및 철강의 저조한 생산 활동이 지속되는 한편, 자동차 생산 증가세 역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의 개선과 조선업 호조세의 지속으로 생산 활동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역시 고물

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 2023.9월 서비스업 생산(전년 동기 대비, %)

숙박·음식업 -1.0, 도소매업 -0.4, 부동산 1.1, 금융·보험 0.5

※ 도소매업 생산(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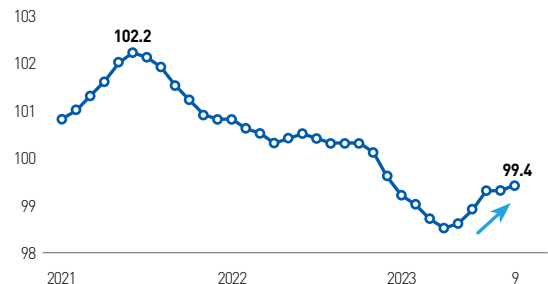
1.7(2023.1) → 5.7(2) → 0.2(3) → -2.0(4) → -1.1(5) → 0.7(6) → -1.8(7) → -3.6(8) → -0.4(9)

국내 산업별 생산지수 증가율

항목	2021	2022	2023		
			Q1	Q2	9월
전산업	5.3	4.6	1.2	-0.5	2.8
제조업	8.4	1.4	-10.0	-7.8	3.0
반도체	26.8	7.7	-33.8	-18.6	23.7
자동차	5.8	8.3	21.5	15.6	0.5
석유화학	4.4	-5.1	-8.1	-7.2	4.2
철강	5.2	-8.5	-6.5	-2.6	20.8
조선	-7.2	20.7	19.6	4.6	9.7
서비스업	4.4	4.8	6.4	2.3	2.2

주: 전년 동기 대비, 철강 2023.9월은 포항제철소 침수로 인한 기저효과 단위 % 자료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등 7개 지표로 구성 단위 2020=100
자료 통계청

반도체

완만한 업황 개선

개인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의 신규 투자 지연으로 2023년 9월 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3년 2분기 이후 수출 감소세는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 3월 이후 5개월 연속 생산지수 감소율이 둔화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폭 역시 축소되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감산에 따른 가격 반등과 AI 서버 수요 증가는 업황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세의 약화와 대형 IT 기업들의 일반 서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AI 서버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반면, 일반 서버 시장은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AI 서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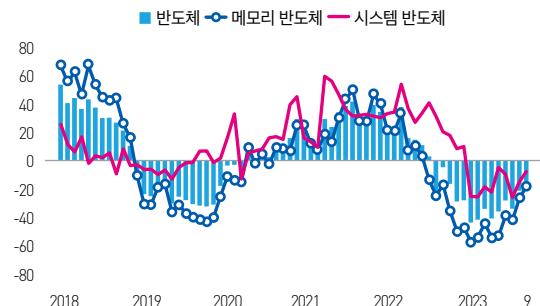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3년 2분기 이후 수출 감소세는 계속 둔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감산에 따른 가격 반등과 AI 서버 수요 증가는 업황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로 인한 메모리 수요 증가 효과를 일반 서버 시장의 축소가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반도체 생산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33.9(2023.1) → -41.7(2) → -26.9(3) → -21.6(4) → -18.7(5) → -15.8(6) → -15.0(7) → 8.4(8) → 23.7(9)

반도체 수출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반도체시장전망

		전망	
		매출액	증가율
2022	Gartner	599,600	0.2
	WSTS	574,084	3.3
2023 ^e	Gartner	532,200	-11.2
	WSTS	515,095	-10.3
2024 ^e	Gartner	630,900	18.5
	WSTS	575,997	11.8

주: e는 전망치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가트너 Gartner,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관 WSTS

자동차

수요 감소로 생산 증가세 둔화

2023년은 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자동차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었다. 이에 해외 시장 이연수요가 실현되면서 2023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수출은 35.1% 상승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23년 9월까지 내수 판매는 10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7.5%를 기록했으며, 생산은 17.4% 상승한 316만 대를 기록하며 내수 판매 역시 호조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2024년은 이연수요 효과가 종료됨과 더불어 고물가고 금리로 인해 2022년 수출 비중의 41%를 차지한 최대 수출 시장 미국의 소비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가구 역시 실질가처분소득 감소의 영향을 받아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내수 시장이 부진할 전망이다 만큼 2024년 자동차 수요는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금 축소와 충분하지 않은 충전 인프라는 성장세 둔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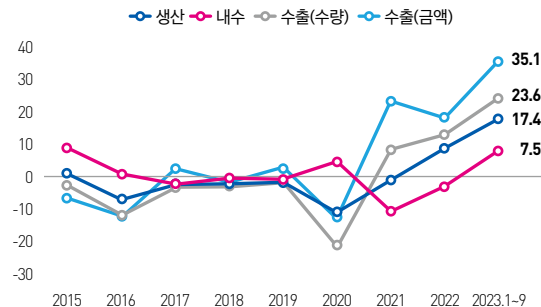
※ 글로벌 전기차 출하(백만 대, 가트너)

11.5(2022) → 15.4(2023) → 18.5(2024)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전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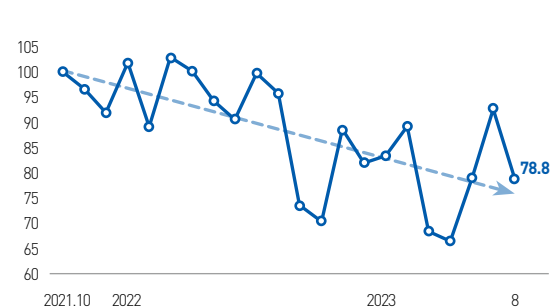
34(2023) → 20(2024)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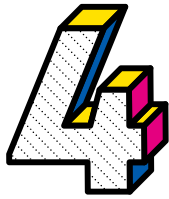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미국 소비자 자동차 구매의향지수



단위: 2021.10=100 자료: 딜로이트 Deloitte



C H A P T E R

중소기업 경기 전망

생산 제조업 정체, 서비스업 감소하며 부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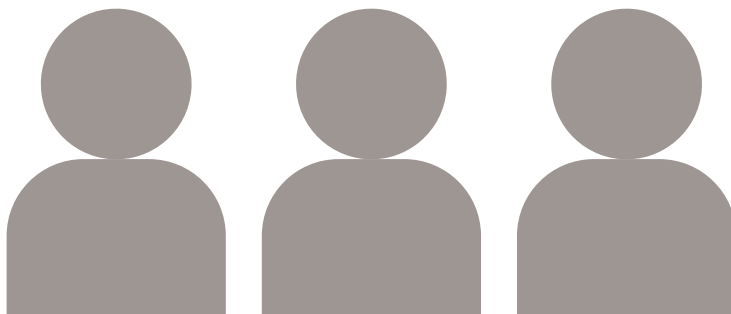
설비투자 설비투자 위축 완화, 회복 속도는 제한적

자금사정 우량·취약기업 간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

소상공인 매출 부진 및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2024년 중소기업 정책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생산

제조업 정체, 서비스업 감소하며 부진 지속 전망

현황

수요 위축 및 생산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생산은 정체, 서비스업은 둔화 지속

내수·수출 실적의 동반 부진 및 인건비, 원자재 등의 비용 상승으로 제조업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은 엔데믹 이후 기저효과 종료와 더불어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내수 실적 BSI(기준=100) 80(2021.9)→82(2022.9)→71(2023.9)
수출 실적 BSI(기준=100)
90(2021.9)→88(2022.9)→77(2023.9)

※ 2023.9월 중소제조업 경영애로사항(복수 응답, %, 중기중앙회)
내수부진 60.5 > 인건비 상승 48.3 > 원자재 가격 상승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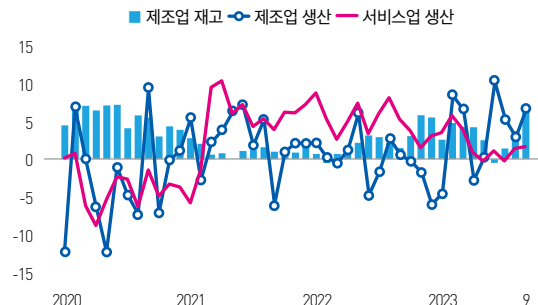
※ 2023.9월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전동비, %)
숙박·음식점업 -2.5 < 도소매업 -0.6 < 총 지수 1.8

전망

주요국 수출 통제에 따른 공급망 불안,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로 생산 회복 지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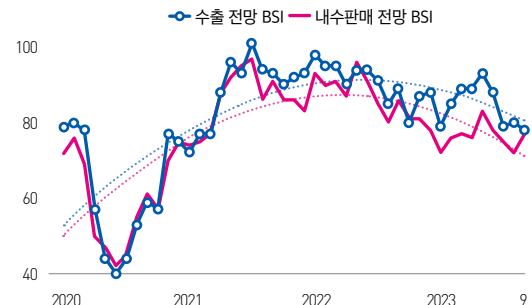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인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요 산업 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며,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세로 인해 수출 개선이 늦춰지고,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의 반등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생산 및 재고



주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 수출·내수 전망 BSI



주 100 초과 경기 호전, 100 미만 경기 악화, 점선은 추세선 단위 pt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

설비투자 위축 완화, 회복 속도는 제한적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및 가동률 정체로 중소기업 설비투자 위축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가중과 업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으로 설비투자 실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월, 남동, 시화 등 주요 산업단지 및 중소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72%대에 머무르는 등 정체를 겪고 있다.

※ 업황 실적 BSI(기준=100)

78(2021.9) → 69(2022.9) → 63(2023.9)

※ 설비투자 실적 BSI(기준=100)

95(2021.9) → 94(2022.9) → 87(2023.9)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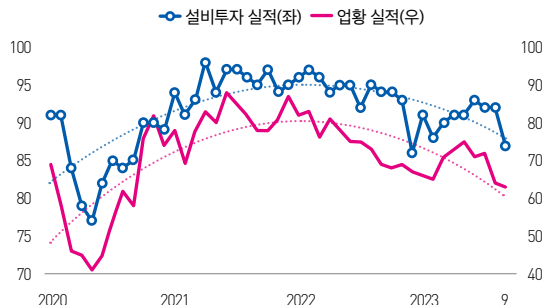
67.7(2020.7) → 70.9(2021.7) → 72.2(2022.7) → 72.1(2023.7)



친환경 수요 대응에 따른 투자 증가가 예상되나 자금조달 비용 부담 등 하방 리스크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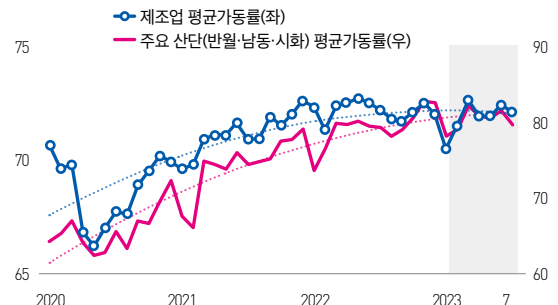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개발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으로 1,277억 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저탄소 설비 교체 및 고성능 반도체와 같은 신성장 부문에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는 상승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비용의 고착화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부담의 영향으로 인해 투자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업황 및 설비투자 BSI



주 100 초과 호전, 100 미만 악화, 점선은 추세선 단위 pt 자료 한국은행

중소제조업 및 주요 국가산업단지 평균가동률



주 점선은 추세선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단지

자금사정

우량·취약기업 간 자금사정 양극화 심화

현황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던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매출 부진으로 다시 악화로 전환

제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지수는 최저점이었던 2022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보이며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2023년 들어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실적 BSI(기준=100)

72(2022.9) → 71(11) → 76(2023.1) → 74(3) → 77(5) → 79(6) → 77(7) → 77(8) → 74(9)

전망

고비용 및 은행권의 우량 기업 대출 쏠림으로 취약기업 유동성 악화

수출 부진 완화 등에 따른 점진적인 매출 개선에도 인건비와 원자재 등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은행권은 우량 기업을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 예상되면서, 취약기업의 외부 차입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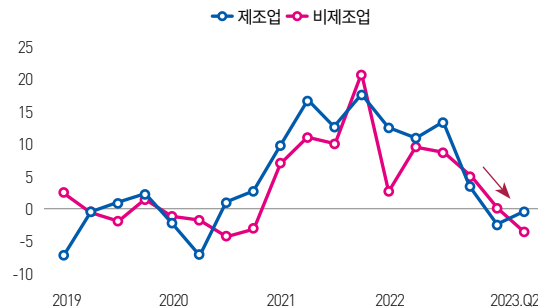
※ 자금사정 곤란의 주요 원인(복수 응답, %, 중소기업중앙회)

인건비 상승 36.7 > 원·환자재 가격 상승 33.0

※ 중소기업 신용위험(감소<0<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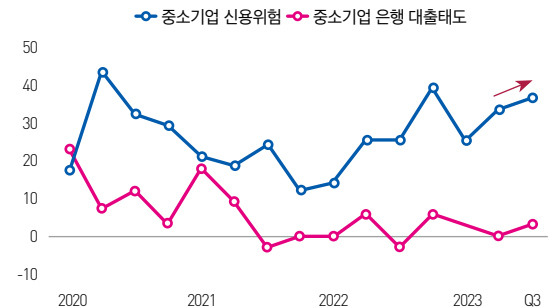
25(2023.Q1) → 33(Q2) → 36(Q3)

중소기업 매출



주 외감 중소기업인, 전분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신용위험 및 은행 대출태도



주 감소<0<증가, 강화<0<완화 자료 한국은행

소상공인

매출 부진 및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현황 소상공인 매출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심으로 2023년 들어 감소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유지하던 소상공인 매출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 둔화로 2023년 2분기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비알코올 및 알코올을 취급하는 음료점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에서 카드 매출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 카드 매출 증감률(2023년 9월말 기준, 전동비, %, IBK)
비알코올 음료점업 -10.8, 주점업 -8.0, 외국식 음식점업 -8.6, 숙박시설 운영업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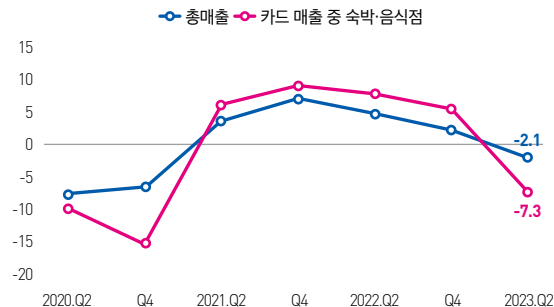
전망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 및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우려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처분가능소득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은 계속 부진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고금리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및 전기·가스·수도요금, 재료값,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채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14.2(2022.Q4) → 3.4(2023.Q1) → -2.8(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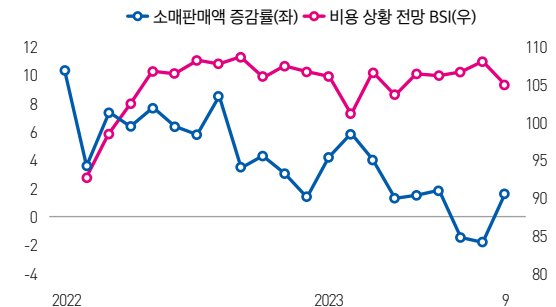
※ 소상공인 비용 상황 전망 BSI(100 이상=비용 증가)
106.1(2023.1) → 106.6(3) → 106.4(5) → 106.6(7) → 104.9(9)

소상공인 매출



주 전년 동기 대비, 당행 여신 보유 개인사업자(카드 매출은 개인사업자 중 IBK BC카드 가맹점) 단위 % 자료 IBK

소매판매액 및 소상공인 비용 상황



주 전년 동월 대비, '비용 상황'은 100 이상일 때 비용 증가 단위 % (좌)·pt(우) 자료 통계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 중소기업 정책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3% 증가한 14.5조 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고도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및 수출 중소기업에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용자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본예산(2024년은 국회제출안 기준, 조 원)

8.86(2018) → 10.3(2019) → 13.4(2020) → 16.8(2021) → 19.0(2022) → 13.5(2023) → 14.5(2024)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4.6조 원으로 편성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청년층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혁신성장펀드 및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편성하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핀테크 지원 사업을 추진해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주요 사업	중점 과제	예산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 촉진 및 자금 확대	·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 창업지원사업, 신성장기반자금 등	7.9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용자,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0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 민간공공 창업자 발굴 육성	1.4

단위 조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주요 방향	중점 과제	예산
서민금융 지원	① 저신용·저소득자 금융 지원(햇살론15)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③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900 7,600 6,657
기업혁신 구조조정 지원	① 혁신성장펀드(구조조정 기업에 투자) ② 기업구조혁신펀드(구조조정 기업에 투자) ③ 핀테크 지원사업(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등)	2,400 500 123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공공부문: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 제공, 지자체&민간: 사업주체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1,000

단위 억 원 자료 금융위원회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별책부록

2024

경제 및 경영 환경 전망